



## SPC삼립, 하이먼 냉갈국수 3종 출시

SPC삼립이 여름 시즌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하이먼 냉갈국수 3종을 출시했다. 성명례 식품 명인의 전통 간장과 고소한 들기름 소스를 더한 '홍천식 비빔 냉갈국수', 강순욱 식품 명인의 참깨고추장을 사용해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특징인 '순창식 명인 비빔 냉갈국수', 제주산 무 동치미와 사골육수로 시원한 맛이 일품인 '제주식 동치미 냉갈국수' 등으로 구성했다.

## 토요타, 가주레이싱 라인 '신형 GR86' 출시

# 가주 레이싱 "더 좋은 차를 위해 극한 도전"

(토요타의 모터스포츠 사업부이자 레이싱 팀)

'가슴 뛰는 경험을 선사하는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

토요타 자동차의 철학이다. 토요타 자동차의 창업자 토요타 키이치로는 "자동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레이싱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올림픽 선수들이 자신의 힘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듯 자동차 또한 레이싱을 통해 한계에 부딪히며 점점 진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도전정신에서 탄생한 것이 토요타의 모터스포츠 사업부이자 레이싱 팀인 가주 레이싱(GAZOO Racing)이다. 그리고 토요타 가주 레이싱이 모터스포츠 도전을 통해 얻은 기술과 경험은 GR이라는 토요타 스포츠카 라인업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토요타 GR86은 엔진 배기량을 기존 2.0L에서 2.4L로 늘리고, 제로백을 6.3초로 단축했으며, 후륜 구동에 수동변속기를 조합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스포츠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요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르망 24시 내구레이스에서 4연패를 달성했다. 2021 르망 24시 우승 후 드라이버들이 환호하고 있다 (아래 왼쪽 사진). 2009년 녹색지옥이라 불리는 독일 뉴르부르크링 서킷을 질주하고 있는 렉서스 LC.

사진제공 | 한국토요타자동차

세계적 레이싱 대회에서 꾸준한 성과 도전 통해 쌓은 기술·경험 적극 활용 신형 GR86, 더 높은 출력·가속 완성 부드러운 변속 실현해 안정적 주행 엔지니어·드라이버 개발 참여 눈길



### ● 뉴르부르크링 레이스 등서 성과

토요타자동차는 토요타 가주 레이싱을 통해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 뉴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 월드랠리 챔피언십(WRC)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1979 다카르 랠리 첫 출전, 1985년 WEC 르망 24시 내구레이스 첫 출전, 1987년 마카오 그랑프리 첫 출전 및 우승, 1988년 영국 F3 챔피언십 우승, 1993년 일본차 메이커 최초 WRC 제조사 및 드라이버 부문 우승, 1995년 사파리 랠리 4년 연속 우승, 1999년 WRC 제조사 부문 우승 등 세계적인 레이싱 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반복되는 급경사와 험한 도로, 170여 개의 코너, 약 300m의 극심한 고저차로 '녹색 지옥(Green Hell)'이라고 불리는 뉴르부르크링 레이스 도전은 토요타의 스포츠카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토요타는 뉴르부르크링 레이스에 레이스카가 아닌 양산차를 베이스로 한

차량으로 출전했다. 4세대 수프라(A80)와 5세대 GR 수프라(A90), 토요타86, 렉서스 LC, LFA(한정판 모델) 등이 모두 뉴르부르크링 레이스를 통해 탄생했다.

르망 24시에서 거둔 성과도 눈부시다. 2018년 르망 24시간 첫 우승을 시작으로 2021년 르망 24시간 결승 레이스에서 GR010 하이브리드 2대가 연달아 1, 2위를 차지하며 르망 24시간 레이스 4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WRC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 팀은 2017년 WRC에 복귀해 2018년 제조사 부문 우승, 2019~2020년 드라이버 부문 우승, 그리고 2021년에는 드라이버 및 제조사 두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 ● 이게 진짜 스포츠카, '신형 GR86' 출시

토요타는 모터스포츠 도전을 통해 쌓은 기술력을 양산 모델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한 GR 모델 라인업을 통해서다.

2019년 GR 스포츠카 시리즈의 첫 번째 양산형 글로벌 모델인 수프라를 선보였다. 이후 GR 컴퍼니를 통해 탄생한 대표적인 순수 스포츠카로는 GR 아리스, GR 수프라, GR86 등이 있다.

GR 수프라는 스포츠 주행에 최적화된 3.0L 6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토크 51kg·m, 최고출력 387마력으로 다이내믹한 주행의 즐거움과 안정적인 코너링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한국에는 2020년 1월 국내에 첫 선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20대 한정 판매를 진행한 바 있다.

토요타 86도 빼놓을 수 없는 GR 스포츠카 시리즈의 명차다. 초경량 후륜구동 컨셉트로 개발된 대중 스포츠카인 토요타 86은 1995년 연재된 '이시달 D'라는 만화에 등장해 오랜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차량 AE86(하치로쿠)을 계승한 모델로 2012년 첫 출시됐다.

신형 GR86은 토요타 가주레이싱의 엔지니어, 드라이버가 차량의 개발과 튜닝에 직접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강력

해진 2.4리터 자연흡기 수평 대향엔진을 도입해 엔진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부드러운 가속을 완성했다. 토요타86 대비 배기량이 400cc 높아져 고회전 영역의 가속력과 응답성이 좋아졌으며, 6단 수동 변속기는 클러치 용량과 기어의 강도를 높여 더 높은 출력과 가속력을 발휘한다.

저점도 오일을 적용해 부드러운 변속감도 실현했다. GR86 전용으로 개발된 신규 FR 플랫폼은 차량 전체의 무게중심과 운전자의 힘 포지션을 낮출 수 있게 해 코너링과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 감성을 즐길 수 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차량의 성능에 기대는 것이 아닌, 운전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진정한 스포츠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시장에는 16일 공식 출시했으며, 가격은 스탠다드 모델이 4030만 원, 프리미엄 모델은 4630만 원(별소비세 포함, 개소비세 3.5% 기준)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G마켓·옥션, 신세계와 함께 '빅스마일데이' 메가스폰서십 브랜드 6개로 늘려...할인 규모도 풍성

G마켓과 옥션이 신세계 그룹 편입 후 첫 빅스마일데이를 27일까지 연다. 빅스마일데이는 G마켓과 옥션이 5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하는 최대 규모 쇼핑 행사다. 이번 행사는 특히 통합 멤버십 출범 이후 신세계그룹이 강조해 온 '온-오프 통합 에코시스템'을 가속화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에선 3만여 판매고객이 전용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로보락, 로레알, 농심, 제과 3사 연합, 휠라, 리바트 등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메가스폰서십 브랜드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6개로 늘렸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한다. 할인 규모도 더 풍성해졌다. 4일에 1번씩 G마켓과 옥션에서 3장씩 제공했던 할인 쿠폰을 4장씩으로 확대했다.

SSG닷컴과 W컨셉 등도 동참한다. SSG닷컴은 27일까지 'SSG 스마일데이'를, W컨셉은 '빅스마일데이 in W컨셉' 프로모션을 벌인다. 또 이마트, 이마트24 등 오프라인까지 행사를 확장했다. 이마트는 지난 주말 사전행사 격인 오프라인 '빅스마일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택천 G마켓 영업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빅스마일데이는 신세계 그룹사가 힘을 합쳐 규모감을 키우고 더욱 강력해진 혜택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롯데면세점, 팜 정부관광청과 팜 사진전

롯데면세점은 팜정부관광청과 함께 '팜으로의 여행' 사진전을 열었다. 팜 정부관광청이 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팜 어게인' 캠페인의 일환이다. 22일까지 롯데면세점 서울 명동 본점 14층 스타라운지에서 열린다. 팜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40여 개의 사진과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팜의 메리조 부두를 형상화한 포토존도 설치했다. 롯데면세점은 2013년부터 팜관광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 건강 올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요로결석, 민간요법은 치료 효과 적어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해야

요로결석 발병률은 계절과 연관이 깊는데 그 중에서도 더운 여름철에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여름철 요로결석 발병은 체외로 배출되는 땀의 양과 관련이 깊다. 땀이 많이 배출되면 소변 농축현상이 생겨 요석결정이 소변에 오래 머무르며 축적된다.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타민D 합성에 따른 체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진다. 이는 요석 결정이 쌓이는 요인이 된다.

요로결석의 주요 증상으로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큰 통증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복부, 고환, 음낭 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요로결석은 자가 치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 일부는 맥주를 많이 마실 경우 섭취에 따른 이뇨 작용으로 결석이 자연 배출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무엇보다 보존요법의 경우 아주 미세한 크기의 결석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간요법으로 요로결석 개선 효과를 체험하기까지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검증되지 않은 자가치리에 의존하는 것보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 치료 방법을 조언 받고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로결석 치료 방법으로는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있다. 몸 바깥에서 충격파를 방사해 결석을 파쇄하는 비수술 요법이다. 부서진 결석은 소변으로 자연 배출된다. 마취, 절개,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시술 및 회복이 빠르다. 사전 정밀검사를 시행해 결석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결석이 지나치게 클 경우 체외충격파 쇄석술 대신 요관내시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myhuki@donga.com

## "연간 186만원 할인" ...현대차, 구독형 전기차 충전 요금제 출시

'럭키패스 H' 가입 시 충전요금 할인 구독료와 약정량 따라 요금제 선택 에스트라팩서 충전 시 50% 할인혜택



현대차가 자사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구독형 전기차 충전 요금제 상품 '럭키패스 H(사진)'를 출시했다. 사진제공 |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구독형 전기차 충전 요금제 상품인 '럭키패스 H'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럭키패스 H'는 가입한 고객이 매달 일정 비용을 내면 약정한 충전량 한도 내에서 충전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구독료와 약정량에 따라 '럭키패스 H Green +' (월 구독료 3만 원, 월 약정량 1200kwh), '럭키패스 H Light +' (월 구독료 1만5000원, 월 약정량 400kwh) 등 두

가지, '럭키패스 H Light +'는 연간 주행거리 2만4000km까지 충전요금이 할인된다. 현대차 아이오닉5의 평균 복합 전비인 5km/kwh 기준이다.

현대차 전기차 오너들은 제휴사인 에스트라팩의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충전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 환경부의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각각 20%와 5%를 할인 받는다. 에스트라팩, 한전과는 현대차가 직접 제휴를 맺었고 환경부는 에스트라팩 제휴를 통해서 할인을 받는 구조다.

또한 에스트라팩과 한국전력의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약정량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충전 요금의 10%가 할인된다. 에스트라팩은 현재 전국 1248곳의 충전소에

서 2734기의 충전기를 운영 중(에스트라팩 홈페이지 기준)이다.

'럭키패스 H Green +' 요금제로 에스트라팩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구독료 포함 연 최대 약 186만 원의 할인 혜택(전비 5km/kwh, 충전료 309.1원/kWh, 연 주행거리 7만2000km 기준)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전기차 소유자는 마이현대(myHyundai)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구독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주행거리가 많은 전기차 고객의 충전 부담을 한층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고객들의 충전 요금 절감 확대를 위해 전기차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